coupang newsroom

[보도자료] 쿠팡이츠서비스, 배달파트너 안전 지원 강화 자손 포함 '고보장 시간제 보험' 혜택 확대

2025. 7. 11.

- **자손 항목 추가 신설해 최대 5천만 원 보장, 대물은 5배 확대해 최대 1억 원 보장**
- **실제 주행 시간만큼만 적용되는 '시간제 보험' 현장 목소리 반영해 실효성 높여**
- **"배달파트너 부담 완화 기대 배달파트너 안전 보호 최우선 가치로 혁신 지속"**

2025. 07. 11. 서울 - 쿠팡이츠서비스(CES)가 배달파트너의 실질적인 안전과 권익 강화를 위해 롯데손해보험과 함께 이륜차 시간제 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쿠팡이츠 배달파트너는 기존보다 한층 높은 보장을 보다 합리적인 요금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쿠팡이츠서비스는 배달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로부터 파트너를 보호하기 위해, 사고 유형과 보장 사각지대를 분석해 롯데손해보험과 협력해 보험 항목을 강화한 이륜차 대상 '고보장 시간제 보험'을 출시했다.

먼저 업계 최초로 최대 5천만 원 한도의 '자기신체사고(자손)' 보장을 신설해 도입했다. 여기에 대물 보장은 기존 2천만 원에서 5배 수준인 최대 1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번 보험은 1시간당 약 800원 수준의 시간제 보험으로 설계돼, 실제 배달 주행 시간만큼만 보험이 적용된다.

시간제 보험은 기존의 정액형 보험 대비 유연한 구조로 이에 따라 짧은 시간만 배달을 수행하는 배달파트너들도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롯데손해보험 고보장 시간제 보험 가입은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앱 내에서 가능하다. 이외에도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의 시간제 보험도 선택할 수 있다.

한 배달파트너는 "시간제 보험 덕분에 부담 없이 보장받을 수 있어 안심된다"며 "특히 이번 고보장 보험은 범위도 획기적으로 넓어져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쿠팡이츠서비스 관계자는 “이번 이륜차 고보장 시간제 보험은 실질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보장을 극대화시킨 것이 특징”이라며 “쿠팡이츠서비스는 앞으로도 배달파트너 보호를 최우선으로, 제도 개선과 실효성 중심의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ES는 이 외에도 무상 안전점검, 안전 교육 프로그램, 지자체 협력 캠페인 등 다양한 현장 밀착형 안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배달파트너의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